

의안 번호	제 14호
의 결 연 월 일	2012. 12. 12 (제 7 회)

의  
결  
사  
항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2013~201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출 자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제출 연 월 일	2012. 12. 12



## 1. 의결주문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 2. 제안이유

-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안)”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의결하고자 함
- 제1차 계획(‘08~’12년)의 종료와 더불어 지식재산 인력양성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투입 계획을 포함한 제2차 종합계획(‘13~’17년) 수립

## 3. 주요 내용

### □ 심의개요

- 지식집약산업이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부각하는 등 최근의 시장 환경 및 현장인력수요의 변화 반영, 경쟁국들의 정책동향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체계화한 종합계획 수립
- 주요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자문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수립

### □ 추진목표

- 지식기반 경제를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대중화 및 친지식 재산 문화 구현을 통한 지식재산 인재강국 건설
- \*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 확대 : (‘12)3만명→(‘17)5만명(전문인력 수급전망에 따라 2만명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
- \* 지식재산 인력 양성 교육(‘13~’17년) : 30만명(민간자체교육 포함)

□ 추진내용 (5대 부문, 21개 중점과제 및 77개 관리과제, 재정투입 : 총 3,145억원)

①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5개 중점과제)

- \* 관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경영자의 지식재산경영 인식 제고,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양성, 저작권 현장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②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3개 중점과제)

- \* 법률 서비스 인력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저작권 인력의 경쟁력 강화

③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4개 중점과제)

- \*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확대, 연구인력 대상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화,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확대, 신지식재산권 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④ 지식재산 인재저변 확대 (4개 중점과제)

- \* 청소년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기회 확대, 영재교육과정에 발명·지식재산 교육 강화,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발명·지식재산 교육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조성

⑤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 (5개 중점과제)

- \*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고도화, 교수인력 양성 및 인력정보시스템 구축, 수요자·공급자 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체제 구축, 지식재산 인력양성 법·제도 정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향후 조치계획

- (시행계획 반영)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내용을 매년 반영·시행
- (점검·협조) 인력양성 정책 추진 상황 점검, 협조 등을 위한 관계 부처 ‘지식재산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및 회의 운영 (연 2회)
  - 인력양성 계획의 진도점검 및 평가는 컨설팅 위주로 시행 하되,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포함
  - 계획 종료연도에 종합점검·평가 실시(‘17년) 후 그 결과를 제3차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반영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안) [요약]

2012. 12. 12

## 관계부처 합동

기 획 재 정 부    교육과학기술부    법    무    부    고 용 노 동 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중 소 기 업 청    특    허    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I

## 추진배경

- **창의적 과학기술콘텐츠 등 지식재산 집약산업(IP-intensive Industry)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
    - 지식집약산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전망
      - \*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올해로 종료
    -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식재산 인력은 창조산업의 주축
      - \* 지식재산 인력 : 지식재산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
    -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R&D 전략추진,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등 지식재산 분야 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융합화 추세
  - **주요 경쟁국들은 정부 주도 또는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 (미국·유럽) 지식재산 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가운데 민간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고 정부는 협력 프로그램 제공
      - \* 美 특허상표청(USPTO)은 로스쿨과 특허관련 실습협력프로그램 운영(32개)
      - \* EU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지식재산교육을 추진 하도록 행동계획(Action Plan) 설정(2003년)
    - (일본·중국)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 적극 추진
      - \* 일본 : 지재인재 육성플랜('12), 중국 : 지식재산인재 12차 5개년 계획('11~'15, 특허 심사관 9천명 양성, 선발된 SIPO 우수직원 해외연수 등을 통해 핵심인력으로 육성('07~'12 278명)
  - **지식재산 인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
    - 창의적인 과학기술·콘텐츠 및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이 상품가치의 주된 결정요인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
    - 지식기반경제 혁신의 주체인 "창의인재" 및 지식재산의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양성·확보가 우리 시장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 ⇒ 경제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필요

## II 지식재산 인재상 및 인력수급 전망

### □ 지식재산 인력 구분 및 주요역량

◆ 지식기반 시대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은 점차 다양화·융합화·전문화 되는 추세

- (정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IP 라이프사이클의 제반 활동 영역 및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
- (구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인력, 관리인력 및 서비스인력의 3 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식재산 전문성 · 활동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유형		지식재산 활동 영역		
		창출	관리	서비스
지식재산 전문성	높음 (전문인력)		지식재산 전담인력 (기업/연구소/대학)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지식재산 경영서비스 인력 (사업화/기술이전/가치평가)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인력 (전담교육자)
	중간 (준전문인력)	연구개발인력 (교수/연구원/대학원생)	지식재산 겸임인력 (기업/연구소/대학)	·지식재산 서비스 실무자 ·지식재산 비전담 교육자
	낮음 (잠재인력)	학생(초·중·고·대), 기업인력, 일반인		

### ○ 주요역량

【지식재산 인력 유형별 주요 역량】

구분	필요한 역량
창출인력*	전문성 · 창의성과 지식재산 소양을 함께 갖춘 융합적 연계역량
관리인력	지식재산의 기술적 이해, IP 실무, 비즈니스 통찰력 등 총체적 관리역량
서비스인력	법률 · 경영 · 금융 · 교육 등 고도의 분야별 전문서비스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 (창출인력 예시)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상표·디자인 개발인력, 문화·콘텐츠 창작 개발인력, SW·앱·게임·폰트 등 개발인력, 신지식재산 개발인력



## □ 지식재산 인력 수요 및 교육 현황

- 창출인력(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이 수요자인 기업 등의 참여 및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정부지원에 의해 수행
- 전문인력(관리·서비스인력)은 대부분 해당 기업 및 서비스 전문 기관의 내부인력 또는 외부경력자 중에서 충원\*되고 있으며, 대학(원)으로부터의 신규인력 공급은 상대적으로 미미

\* 관리인력의 내부인력 충원비율 : 67.9%('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 전망】

구분	2012년 현황	2017년 전망	
		자연증가 추정치	적정 인력규모
관리인력	1.7만명	2만명	2.8만명
서비스인력	1.3만명	1.8만명	2.2만명
총 계	3만명	3.8만명	5만명

\* 창출인력(자연증가시) : ('12) 35만명 → ('17) 49만명

## □ 향후 지식재산 인력 교육수요 전망

- 신규인력(대체수요 포함) 및 재직인력 교육수요는 5년간 누계 총 93만명(창출 85만명, 관리·서비스인력 8만명)으로 분석

\*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및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12)을 토대로 산출

### 【지식재산 인력 교육수요 전망】

(단위 : 만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창출 인력	신규	3.6	3.9	4.1	4.4	4.7	20.7
	재직	11.2	11.9	12.8	13.7	14.6	64.2
관리인력		0.8	0.8	0.9	0.9	0.9	4.3
서비스인력		0.6	0.7	0.8	0.8	0.9	3.8
총계		16.2	17.3	18.6	19.8	21.1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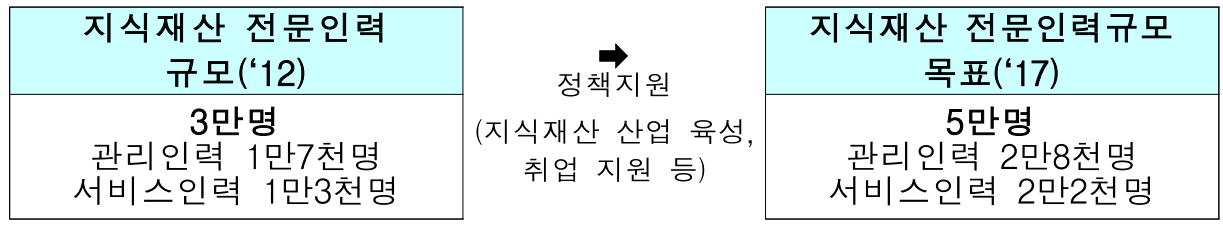
- ➡ ①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현재 3만명 수준인 지식재산 전문 관리·서비스 인력을 '17년까지 적정수준인 5만명 규모로 확대
- ② 교육인원의 점증적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수요를 '17년까지 100% 충족함(창출인력 중 재직인력은 별도)을 목표로 5년간 총 30만명 교육

### III 핵심 추진전략

◆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예상 및 적정규모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목표 및 핵심 전략과제를 설정하되, 정부의 지식재산산업 발전전략 등과 연계

□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연계

- 지식재산 산업육성 등의 정책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규모를 5년간 2만명 확대( '12년 3만 → ' 17년 5만)



\*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7만명('10) ('15년까지 12만명으로 확대 추진, 일본 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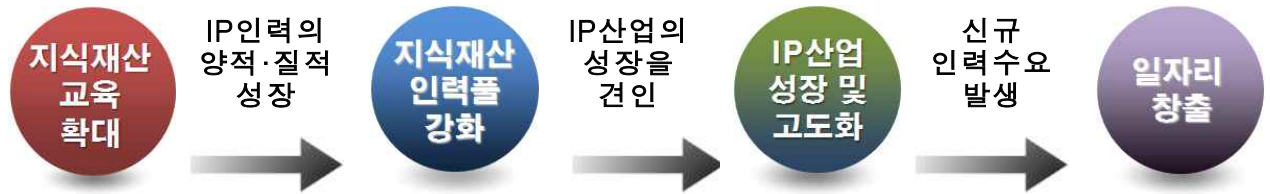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구분		'12	'17	주요 프로그램	
관리 인력	기업	13,900	22,400	관리인력 양성과정(7천5백명), 관리인력 채용연계과정(7.5백명),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5백명), 분쟁대응 전문교육과정(1천명), 대학 지식재산 부전공과정 등	
	대학 및 공공연	1,600	2,600		
	저작권	1,900	2,900		실무종사자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소계	17,400	27,900		
서비스 인력	변리사	2,700	3,600	실무연수과정(1천명), 시험선발제도 개선 등	
	변호사	800	2,300	특허청-로스쿨 협력 프로그램 등	
	전문지원인력	6,600	10,900	서비스 인력 채용연계과정(5백명),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5백명), IP-R&D전문인력과정(1천명), 신규 서비스인력 양성과정(연 1천명) 등	
	프리랜서	1,300	2,200		
	저작권위탁관리	2,000	3,000	전문자격제도 도입·운영, WPO-저작권 썸머스쿨 등	
	소계	13,400	22,000		
<b>총계</b>		<b>30,800</b>	<b>49,900</b>		

\* 정책적 투자를 통해 연평균 자연증가 전망치('12, 지식재산연구원) 보다 많은 성장 도모(증가율 : 관리인력 2.2% → 10%, 서비스인력 7.3% → 12%)

-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지원, IP-R&D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 구현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분쟁대응, 지식재산 경영 등을 위해 적기공급이 시급한 지식재산 관리·서비스 분야 재직인력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강화

○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인력(창출관리서비스 인력) 누계 약 30만명 교육

연간 교육 인원('12)	➔ 정책지원 (중소기업 인력교육 지원 등)	연간 교육 목표('17)
약 3만명		약 10만명

**【지식재산 교육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구분		'13	'14	'15	'16	'17	계	주요 프로그램
창출 인력	신규	15,000	20,000	25,000	35,000	47,000	142,000	대학 지식재산 강좌 등 이공계 학부생 20% 교육('17) 대학원 30개교 100강좌('17) 등
	재직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25,000	연구개발인력과정 3만5천명('17) (민간과정 포함) 등
관리인력		4,500	5,500	6,000	7,000	8,200	31,200	관리인력 교육과정(중소기업 교육 연 6천명 등)
서비스인력		2,000	3,000	4,000	5,500	7,300	21,800	서비스인력 교육과정(연 4천명 내외) 변리사 교육과정(연 3천명) 등
계		36,500	48,500	60,000	77,500	97,500	320,000	

\* 對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인원 및 교육과정 등은 별도

○ 아울러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변리사 역량강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FTA, 글로벌 특허분쟁 등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범국가적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국가·지역·교육기관·기업간 유기적 협력체제 및 지역지식재산 교육허브(RIPA,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구축

현재 ('12)	➔	목표('17)
특허청, 문화부 등 중앙부처 중심		지자체·교육기관·기업 및 정부의 협력체제 구축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육성 등 대학의 자율적 교육 역량 강화

# IV 5대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 지식재산 인재강국

### 추진 목표 ('13~'17)

- 지식기반 경제를 주도할 지식재산 인력 양성
  - ※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 확대 : 3만명('12) → 5만명('17)
  - (젊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 2만개)
- 지식재산의 대중화 및 親지식재산 문화 구현
  - ※ 지식재산 창출·관리·서비스 인력 양성교육 : 30만명('13~'17)
- 5대 부문, 21개 중점과제, 77개 관리과제(재정투입 : 총 3,145억원)

### 5대 부문 21개 중점과제

<p><b>1.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b></p> <p>(1) 관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2) 경영자의 지식재산경영 인식 제고                      (3)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양성                      (4) 저작권 현장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p>	<p><b>2.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b></p> <p>(1) 법률 서비스 인력의 경쟁력 강화                      (2) 서비스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3) 저작권 인력의 경쟁력 강화</p>	<p><b>3.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b></p> <p>(1)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확대                      (2) 연구인력 대상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화                      (3)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확대                      (4) 신지식재산권 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p>
<p><b>4. 지식재산 인재저변 확대</b></p> <p>(1) 청소년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기회 확대                      (2) 영재교육과정에 발명·지식재산 교육 강화                      (3)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발명·지식재산 교육 연계 강화                      (4) 지식재산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조성</p>	<p><b>5.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b></p> <p>(1)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고도화                      (3) 교수인력 양성 및 인력정보시스템 구축                      (4) 수요자·공급자 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체제 구축                      (5) 지식재산 인력양성 법·제도 정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p>	

# 1.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 목표

- ◆ 지식재산 관리인력 확충 : 1만7천명('12) → 2만8천명('17)
- ◆ 지식재산 관리인력 교육 : 3만명('13~'17)

### □ 관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문화부, 고용부, 특허청)

- 관리인력 양성과정 및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재교육 및 신규관리인력 교육과정 운영
  - \* 재직인력 재교육 : ('13) 4,500명 → ('15) 6,000명 → ('17) 7,000명
  - \* 신규관리인력과정 : 연평균 1,500명
- 주요국의 지식재산 제도 및 분쟁대응에 관한 전문학위 및 교육과정 운영
  - \*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연간 100명), 주요 분쟁대상 국가별 전문과정(연간 200명)
- 저작권 산업분야 실무 종사자 양성을 위한 저작권 문화학교 및 아카데미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 \* 교육인원 : ('11) 348명 → ('13) 1천명 → ('15) 2천명 → ('16) 3천명

### □ 경영자의 지식재산경영 인식 제고(문화부, 특허청, 중기청)

- 대기업·중견기업에서는 지식재산 담당임원(CIPO)을 두도록 권장하고,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 과정에 지식재산경영 과정 개설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지재권 경쟁력 강화 유도, 저작권 아카데미 CEO과정 운영

### □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양성(특허청, 지재위)

- 지식재산 전략수립 실전대회 수상자, 지식재산 강좌 우수 수강생 등을 지식재산경영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 대학창의발명대회, D2B디자인페어, 대한민국청소년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등
- 지식재산 분야 해외연수과정 마련을 통해 글로벌지식재산 정예인재 양성('14년 이후 연간 30명, 대상: 기업근무자, 변리사, 학생 등 공모를 통해 선발)

### □ 저작권 및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문화부)

- 해외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SW개발자 및 기업 대상 저작권 교육·권설팅\* 운영 및 공공부문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 \* ('13) 50회 → ('14) 60회 → ('15) 70회 → ('16) 80회 → ('17) 90회
- 한류 콘텐츠 수출업체 실무자 대상 저작권 유통 및 라이선스 계약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지원(연 1회)
- 창조경제형 콘텐츠 창의인재 및 3D·스마트 등 장르별 전문역량 강화

## 2.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목표

- ◆ 지식재산 서비스인력 확충 : 1만3천명('12) → 2만2천명('17)
- ◆ 지식재산 서비스인력 교육 : 2만명('13~'17)

- 법률 서비스 인력의 경쟁력 강화(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 대학 지식재산 교육 → 변리사 시험 → 연수 → 보수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변리사양성과정 체계화 추진(변리사법 개정)
  - 법률시장개방 대응 및 해외 법률서비스 시장 진출 능력 향상을 위한 변리사 등 교육과정 및 저작권 전문과정 개발·운영
    - \* 변리사 보수교육에 국제 라이선싱 전문자격 인증(CLP) 도입, 기술가치평가·라이선싱·분쟁대응 관련 국제전문가 과정 운영
  -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고도화를 위하여 지재권 특성화 로스쿨 등 특허청-로스쿨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예비 변호사의 교육 → 변호사 시험 → 실무연수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전문역량 강화
    - \* 변호사 지식재산 전문분야 등록 등 전문성 강화촉진 입법 추진
- 서비스 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문화부, 특허청)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서비스 재직 인력 전문 교육 및 전문인력의 경력개발제도(CDP) 개발
    - 전문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개발
    - \* 교육인원 : 2,000명('13) → 4,000명('15) → 7,000명('17)
  - 국가, 기업,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전략을 지재권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R&D 전문인력 양성
    - \* IP-R&D 확산 캠페인, 체험캠프, 대학 교과과정을 연계한 교육 추진 등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 저작권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 자격제도 도입 추진
- 저작권 인력의 국제경쟁력 강화(문화부)
  - 국제지식재산기구(WIPO) 연계를 통한 저작권 국제 전문가 양성
    - \* WIPO-저작권 하계연수과정(썸머스쿨) 운영 및 WIPO-공동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선진국 방문형 저작권 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단기) 참가 지원
    - \* 저작권 교육 참가자 중 우수자를 선발 또는 공모하여 해외연수 지원

### 3.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 목표

- ◆ 이공계 대학 지식재산교육 : 7천명('12) → 4만명('17)
- ◆ 지식재산 융합교육 : 3만명('13~'17)

#### □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확대(문화부, 특허청)

- 이공계 대학생 기준 20%(현재 수준의 3배) 이상의 학생에게 지식재산 교육 실시를 통해 공학인증과 연계하는 등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 교육
  - \* 이공계 학부생 강좌 수강생 비중 : ('13)8% → ('15)14% → ('17)20% 이상
- 대학 지식재산 강좌 체계화 및 자율적 지식재산 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 \* 목표대학(누계) : ('13) 6개대학 → ('15) 16개대학 → ('17) 26개대학
- 인문·예술계열 창작관련 학과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확대
  - \* 과목개설 대학(수) : ('14) 20개대학 → ('15) 40개대학 → ('17) 60개대학

#### □ 연구인력 대상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화(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 3만명\*의 대학원생에게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전공-지식재산 융합교육 추진 및 기초실무교육 병행, 공학-법학-경영-디자인 등 학제 간 융합 지식재산 실무교육 도입
  - \* 강좌수 : ('13) 25개대 45강좌 → ('15) 30개대 60강좌 → ('17) 35개대 100개강좌
- 기업, 공공연 등에 재직 연구개발인력의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SW, 게임, 앱 개발자 대상 교육, 지식재산에 강한 이공계 교수요원 양성
  - \* 교육인원(민간부문 포함) : ('13) 1.5만명 → ('15) 2.5만명 → ('17) 3.5만명
- R&D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저작권 산업 실무학제형 학위과정 운영
  - \* 교육인원 : ('12) 300명 → ('13) 300명 → ('17) 500명

#### □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및 신지식재산권 교육 확대(문화부, 농식품부, 특허청)

- 특허전략 수립, 선행기술조사, R&D, 상표·디자인,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실전형 프로그램 운영 강화
  -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CPU), 대학창의발명대회, 논문경진대회 등
- R&D, SW, 앱, 상표·디자인, 문화·콘텐츠분야 창조적 창출인력 양성 및 콘텐츠 유통 및 계약 등 저작권 실무교육
- 식물신품종보호, 지리적 표시, 전통지식 보호 유전자원관리 전문인력 등 신지식재산권 인력양성 과정(농림수산식품연수원) 운영

## 4. 지식재산 인재 저변확대

### 목표

- ◆ 교과과정에 지식재산 내용 반영 제도화 추진
- ◆ 기초지자체 지역발명교육센터 운영 : 228개

- 청소년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기회 확대(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 초·중·고 교육과정에 반영된 발명·지식재산 교육 내용 체계화, 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 내용을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 검토(교과부)
  - 지역의 발명·지식재산 거점교육기관으로 발명교육센터\*(舊 발명교실) 육성
    - \* 광역(거점 발명교육센터) 및 기초지자체(지역 발명교육센터, 228개)에 설치
  - 저작권 연구학교 및 체험교실 확대, 생활속 저작권 강좌 등 저작권 교육 강화
    - \* 저작권 연구학교 확대 : ('13) 6개교 → ('15) 80개교 → ('18) 100개교
    - \* 저작권 체험교실 확대 : ('13) 100교실 → ('15) 200교실 → ('18) 400교실
- 영재교육과정에 발명·지식재산 교육 강화(문화부, 특허청)
  -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창의적 연구인력, 기업가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확대(2개소→4개소)
    - \* ('12) 중부권(1개), 영남권(1개) → ('17) 중부권(1개), 영남권(1개), 수도권(1개), 호남권(1개)
  - 영재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운영
  - 청소년용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강화
-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발명·지식재산 교육 연계 강화(문화부, 특허청, 중기청)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상 ‘발명·특허’ 교육과정 운영 지원확대, 고등학교 창업교육 연계
    - \* ('13) 50개교 → ('14) 60개교 → ('15) 70개교 → ('16) 80개교 → ('17) 100개교
  - 예술계, 애니메이션, 인터넷고 등 문화콘텐츠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 지원
    - \* ('14) 12개교 → ('15) 15개교 → ('17) 20개교
- 지식재산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조성(문화부, 특허청)
  - 지식재산 교육관련 연구·학술활동 활성화 및 창의발명주간 등 문화확산 캠페인 전개
    - \* 학생발명전시회, 창의력챔피언대회 등 개최(매년 7월말, 창의발명주간으로 지정)
  - 청소년의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 발명체험관\* 운영 및 생활 미디어를 연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강화
    - \* (미국) 워싱턴의 미국사박물관 내에 ‘발명체험시설(Lemelson Center)’ 운영



##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

### 목표

- ◆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 구축 : 17개('13~'17)
- ◆ 지식재산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 : 응시인원 3만명('13~'17)

-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관계부처, 지재위)
  - 인력양성 정책과 지식재산 산업 정책간 연계
    -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지원, 대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보 유도·지원,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사업, IP-R&D 사업 등
  - 지식재산 인력의 시장진입 및 기존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고도화(문화부, 특허청)
  - 교육·채용 연계 '지식재산능력평가시험' 시스템 구축, 운영('13년)
  - 지식재산 관련 능력검정시험 또는 자격사 개발 및 활용 추진
  - 전공·분야·수준별 교재 개발·보급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선
  - 저작권 복합 문화공간, 범국민 지식재산 평생교육 이러닝체계 도입·운영('13년)
- 교수인력 양성체계 강화(문화부, 특허청)
  - 지식재산 융합교육 교수 및 전문강사 교육과정 운영(매년 100명)
  - 지식재산 인력 및 통계 정보의 조사·분석 및 제공
  - 저작권 교육연수원 전문 교수요원 확충 및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 수요자공급자 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체계 구축(관계부처, 지재위, 지자체)
  - 수요자(지역기업, 청소년)·공급자(지역대학, 정부지자체) 협동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가칭)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RIPA)'를 구축하여 운영('17년까지 17개)

###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 모델】



-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추진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 \* 문화부, 교과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TF 기관, 발명진흥회, 저작권 위원회 등 유관기관 및 기업, 연구소 등 수요기관

## V 재정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재정투자) '13~'17년 기간 동안 계획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3,145억원이며 연 평균 629억원 규모 투입 ( '12.12월 현재 정부 제출 예산안 기준)
- 5대 부문 중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부문 (1,044억원), '지식재산 인재저변 확대' (963억원)에 가장 많이 투입되며, 21개 중점추진과제 당 평균 117억원 규모

【5대 부문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부 문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18,642	21,627	21,083	21,432	21,676	104,460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800	1,900	3,080	4,100	4,110	13,990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4,337	9,299	13,082	14,446	13,873	55,037
지식재산 인재 저변 확대	17,114	18,680	19,425	20,179	20,933	96,331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구축	3,057	6,392	7,096	12,051	16,107	44,703
총계	43,950	57,898	63,766	72,208	76,699	314,521

- (기대효과)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아울러,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젊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앞서 친지식재산(Pro-IP)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통해 4,000만개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과 자국의 국내총생산의 35%에 육박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분석

## VI 향후 조치계획

- (시행계획 반영)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시행
- (점검·협조) 인력양성 정책 추진 상황 점검, 협조 등을 위한 관계부처 '지식재산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및 회의 운영 (연 2회)
  - 인력양성 계획의 진도점검 및 평가는 컨설팅 위주로 시행하되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포함
  - 계획 종료연도에 종합점검·평가 실시( '17년) 후 그 결과를 제3차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반영

